사 설

문화재廳에 거는 기대

정부가 중앙부처 행정기구를 축소 개편하면서 문화재관리국만큼은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해 청(廳)으로 승격시킨 것은 문화정책의 측면에서 매우 잘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예산이나 전문성 문제로 겪었던 문화재 보존과 관리상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불교계로서는 이같은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문화재청 설치배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문화의 세기'를 앞두고 문화입국(文化立國)의 기치를 내건 정부의 의지와 문화계의 요구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부존자원도 변변치 못하고 국토도 넓지 못한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입국' 밖에 방법이 없다.

석굴암과 불국사 팔만대장경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영국여왕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한국문화와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리 문화의 세계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더욱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번 문화재청 승격은 바로 이같은 인식을 바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부가 '문화재청'을 설립했다고 문화대국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청이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하도록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문화재청의 정책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는 곧 서구화를 세계화로 인식하고 수많은 문화와 문화재를 파괴해왔다.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초가집을 헐어내고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유서깊은 문화재를 손상시켰다. 최근에도 건축법을 개정해 전통사찰 크앞에 위락시설을 짓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문화정책으로는 문화입국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 앞으로는 모든 정책이 문화주의적 발상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문화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문화재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1급 청으로 승격되면서 기구가 확대됐다고 타부처의 비전문가가 밥그릇을 차고 들어온다면 청승격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반드시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사학 등 문화유산과 직결되는 전문가들을 임용하여 학예직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과거 문화재관리국 시절 순환인사라는 명목으로 행정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해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했던 경험을 반성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책과 예산상의 특별한 배려다. 불교문화재는 문화재이면서도 종교적 신앙의 성보라는 양가적(兩價的) 가치를 지닌다. 불교문화재는 '성보(聖寶)'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관리를 해야 한다.

예컨대 경복궁내 석탑이나 전국에 산재한 불교문화재들이 신앙의 성보로서 예배될 수 있도록 사찰로 이관하고, 경주박물관의 파불(破佛)에 대해서도 신앙적 감정을 고려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다. 문화재청은 바로 이런 문제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의 승격은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그런 만큼 할 일도 많고 기대도 크다. 관계자들은 청승격을 계기로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여 · 야가 없다

'새시대 불교포럼' 출범

전문직 젊은 재가 32명 참여

사회정의-불교발전-평화통일

분과별 불교사상 입각 대안제시

젊은 재가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사회와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시대 불교포럼'을 창립한다.

'새시대 불교포럼'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홍사성 불교시대사 주간, 김연규 외대교수)는 12일 오후 7시 조계사 교육문화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새시대 불교포럼은 부처님의 중도연기론적 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정의, 평화통일, 불교발전을 목표로 월례포럼, 종단지원사업, 소식지 발간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간사업인 월례포럼은 사회정의, 불교발전, 평화통일 등 3개 정책분과를 두고 매월 한가지씩 사회제반문제를 각 분야별로 불교사상에 입각하여 심층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월례포럼의 내용은 소식지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게 된다.

특히 새시대 불교포럼은 21세기 한국불교의 능동적 변화와 미래지향적인 종단만들기 사업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위해 종단의 각종 사회정책과 종단의 행정시스템에 대한 연구작업을 통한 정책적 지원과 인력뱅크를 구성해 전문적인 조언으로 종단운영을 지원한다는 것.

홍사성 창립준비위원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직접적인 사회구원활동과 종단지원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연구및 조직사업, 대중·교육사업등을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불교포럼에는 이종철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우호(행정자치부 사무관) 배정회(과학기술부 사무관) 최수종교수(한림의대) 박경준, 최순열교수(동국대) 박일환(국민회의 정책위원) 유연(LG증권 과장) 이원석(동부지청 검사) 김형욱(청와대 종합상황실 과장) 박영규(작가) 신상진(성남의원 원장)씨등 32명의 각계의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다.

창립준비위원은 정책위원장 박승원 소장(시스템경영연구소), 조직위원장 정웅정 사무처장(재가연대), 대외협력위원장 노귀남(경희대 강사), 실행위원장 조성열(성균관대 강사)씨 등이다. 새시대불교포럼은 재가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회비는 월 1만원. (02)725~4282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혜암종정 부처님오신날 법어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나무마다 새가 울며 벌 나비 춤추니 어허 좋을시고. 사월이라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모든 중생 생일 잔치 얼시구 좋고 좋다.

부처님은 일체중생이 본래 천진불(天眞佛)임을 깨우쳐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을 가르쳐 주시며, 오직 생사일대사를 위하여 연극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은 귀천없는 본래 천진불 가진자는 남 돕고 권위자는 公心을"

인간의 본분사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뒤에라도 추호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며 근본 원리이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모두 천진불이니 부처와 같이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고 권위자는 공심(公心)을 쓸지어다.

중생들이 서로 싸우고 침해하는 것은 일심동체의 본연성을 모르기 때문이니 서로의 본연성을 알고 보면 싸울래야 싸울 수 없으며 해칠래야 해칠 수 없다.

본래 성불의 이 진리는 만고에 변함이 없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이다.

본분사로 말하자면 내 본심 밖에 부처가 따로 없는 것이니 일체중생이 다 함께 자기들의 생일을 축하하도다.

바다밑에 등불켜니 온세상 밝아지고 허공으로 북을 치니 중생들이 잠을 깨네.

아악-

불기 2543년 5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혜암

"공단과 '공원무료입장' 재협상"

조계종 관람료위원 15명 선출…위원장 혜광스님

◇혜광스님

조계종 총무원(원장 고산)은 4일 불교회관에서 관람료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신도증 소지자의 당해사찰 무료입장'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집행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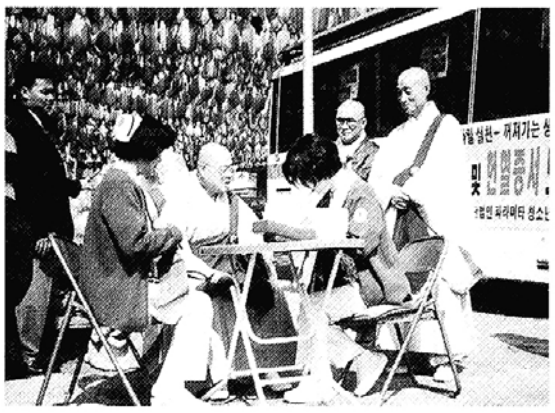
이에 따라 이날 포교원이 준비한 국립공원관리공단 규탄 결의도 공단과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채택키로 했다.

'관람료사찰 주지 일동'으로 발표하려 했던 결의문에는 △공단이 재적사찰에 한해 무료입자을 강행할 시정부를 상대로 사찰소유토지의 보상문제와 관련한 법적 대응(이용료 청구 또는 공단시설물의 퇴거 등)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도들의 사찰출입 자유 보장 △신도등 소지자의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징수하지 않는다 등 3개항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관람료위원회 위원을 선출했다. 관람료위원 15명은 다음과 같다.

혜광(위원장, 법주사) 장윤(부위원장, 전등사) 법철(간사, 총무원 재무부장) 도후(신흥사) 도영(금산사) 녹원(직지사) 성오(범어사) 종상(석굴암) 양산(총무원 문화부장) 일연(동학사) 설송(대전사) 종고(천은사) 운수(내장사) 세영(신륵사) 운공(운주사).

관람료위원회는 관람료사찰 주지회의 직후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혜광스님, 부위원장에 장윤스님, 간사에 일철스님을 선출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자비의 헌혈운동 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정련스님)가 4일부터 '자비의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4일 선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조계사 신도들이 참석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헌혈을 준비하는 모습.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보림사-봉정사 관람료사찰 지정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위원장 혜광)는 4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전남장흥 보림사와 안동 봉정사를 관람료사찰로 지정했다.

보림사는 9산선문 가운데 최초로 개창된 사찰(759년 원표대사 창건)로,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44호) 등 국보 2점과 보물 8점, 전남도유형문화재 1점 등 다수의 성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관람료는 1천원으로 정했다. 봉정사는 4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한 사찰로 682년(신라 경문왕 2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국보 15호로 지정된 극락전을 비롯 보물 3점, 경북도유형문화재 2점 등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관람료는 2천원으로 결정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포교원장 국방부장관 면담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과 종교편향대책위원장 현진스님(포교부장)등 종교편향대책위 관계자 4명은 7일 천용택 국방장관을 만나 "김태복소장의 101여단 군법당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천장관은 "김소장과 관련한 군사재판의 선고를 연기하는한이 있더라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스님 15명 징계

조계종 재심호계원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은 6일 16차 심판부를 열어 동광스님(도선사 주지) 등 15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도견 법민-공권정지 5년, 혜총 각의-공권정지 4년, 동광 덕현-공권정지 2년, 태관 돈명-공권정지 1년3개월, 성천(전 불국사 부주지)-공권정지 1년, 철우-공권정지 6개월, 선관-면직, 능업 청우 명현 효진-문서견책.

정성운 기자

직능종회의원 27일 보궐선거

조계종 중앙선관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덕운)는 6일 중앙종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46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궐위된 율원·행정분야 직능직 종회의원을 27일 선출키로 했다. 직능직 종회의원 보궐선출은 월서스님의 재심호계원장 취임, 성우스님의 사퇴, 현근스님의 제명에 따른 것이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17~19일이다.

선관위는 또 140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위원을 선출하도록 중앙종회에 권고키로 했다.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위원은 총무원장과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 당연직 3인과 종회에서 선출한 6인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정성운 기자

승려 기본교육 이수 조계종교육원 촉구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4월 30일 95년 제8기 행자교육부터 97년 제13기 행자교육을 수료한 1천2백78명의 사미(니) 가운데 기본교육기관 미입학자 5백명의 명단을 공식발표하고, 기본교육이수를 촉구했다.

교육원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미(니)가 올 상반기 중에 입학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당 본말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관장 이혜총스님 취임식

■일 시 : 불기 2543년 5월 12일(수) 오후 3시 ■장 소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강당

초청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는 지난 5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장 이혜총 스님 취임식」을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무루 참석하시어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99. 5.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정 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상임이사 혜 총 합 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 장

시설개요

개 관 : 1996년 3월 4일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 : 2,285㎡ 건물 : 2.749 ㎡

※ 복지관 사업 안내 ※

□ 복지관 사업
가정복지/아동복지/청소년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지역복지/예식장 대관
□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타
□ 부설 어린이집
□ 부설 무료한방진료
□ 부설 무료급식 사업
□ 자원봉사자 모집
집안청소/세탁/방문간호/병원동행/말벗/이·미용/도배/사업 및 업무보조/기타
□ 후원자 모집 (자비는 실천이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요)
아쿠르트 후원/우유 후원/현물 후원/결연금 후원 등
□ 후원구좌 : 부산은행 083-01-033926-6
예금주:용호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은 법인세법에 의해 연말 정산시 5%한도내에서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우)608-093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3동 36-7 ☎ (051)628-6737~9 전송 : (051) 628-6562